

국어방정식

공식으로 명쾌하게, 국어도 방정식처럼!

2026학년도(2026년 3월 시행) 고2 국어 독서 [18~23]

생명 중심 윤리와 생태 중심 윤리 · 독서 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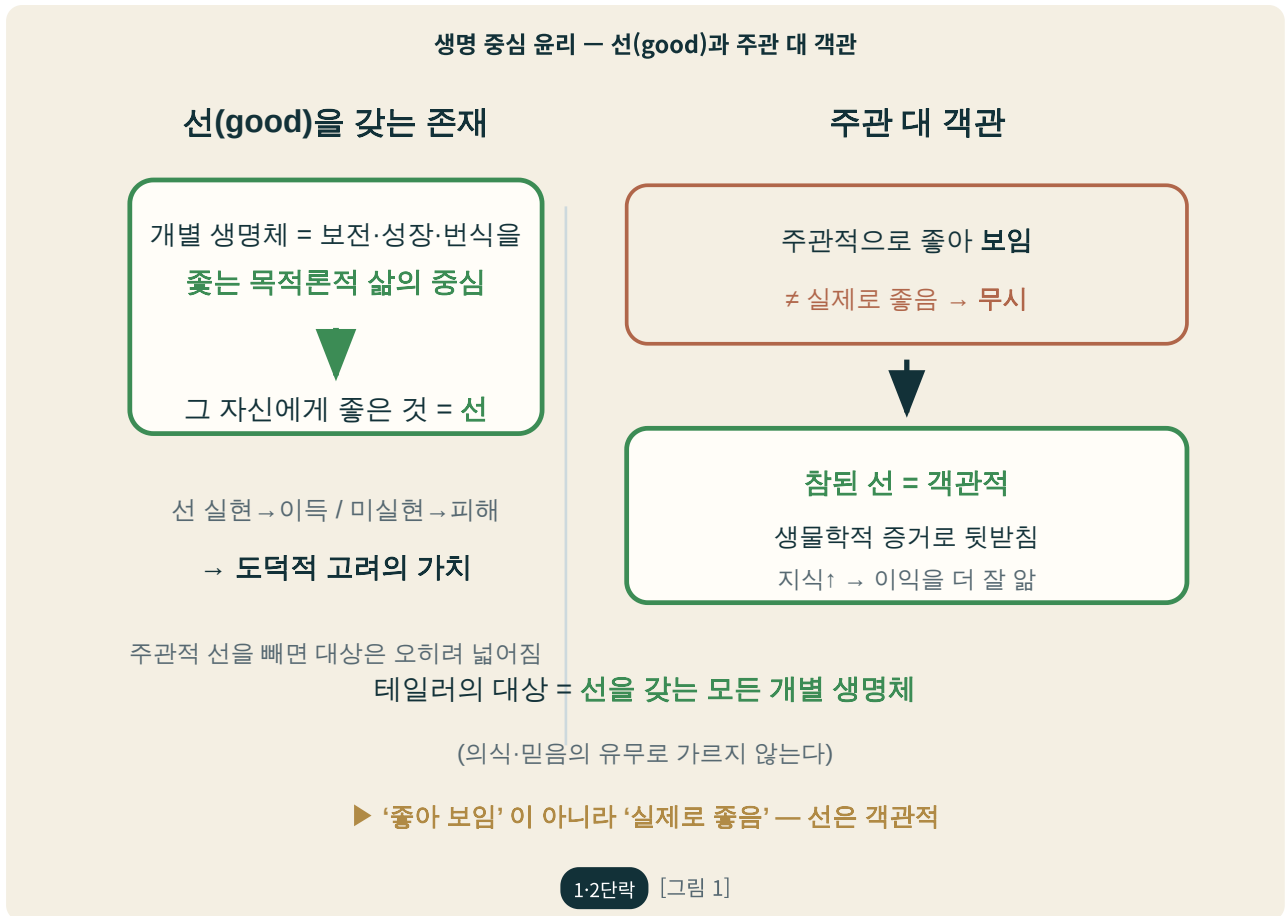
인문·윤리 ((가) 테일러의 생명 중심 윤리 · (나)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 윤리)

목 차

제목을 누르면 그 자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각 쪽 아래 「▲ 목차」로 되돌아옵니다.

① 본문 ▶ 바로가기	미리보기	3쪽
② 원문제 해설 ▶ 바로가기		7쪽
③ 3단계 요약 ▶ 바로가기		13쪽
④ 인포그래픽 요약 ▶ 바로가기	미리보기	14쪽
⑤ 기본 개념 해설 ▶ 바로가기		16쪽
⑥ 심화어구 해설 6 ▶ 바로가기	미리보기	17쪽
⑦ 변형 오지선다 15 (세트 1~3) ▶ 바로가기	미리보기	20쪽
⑧ 심화 — 응용 사례 3 + 초고난도 OX 30 ▶ 바로가기	미리보기	30쪽

미리보기 — 목차의 제목·쪽수·미리보기 표시, 어느 것을 눌러도 그 장이 바로 열립니다. 열려 있는 지면은 각 갈래의 첫 장이고, 그 뒤는 정식판에서 이어집니다. 지면의 내용·품질은 모두 같습니다.



① ¹⁻¹(가)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¹⁻² ◎ 심화1 생명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 사상이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자기의 보전, 성장, 번식을 ㉠쫓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즉 ‘기초1 선(good)’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¹⁻³테일러는 자신의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② ²⁻¹테일러는 선이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²⁻²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²⁻³ ◎ 심화2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²⁻⁴테일러는 주관적인 선을 무시한다. ²⁻⁵이는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²⁻⁶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 ²⁻⁷이러한 선은 객관적이며,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²⁻⁸어떤 존재가 선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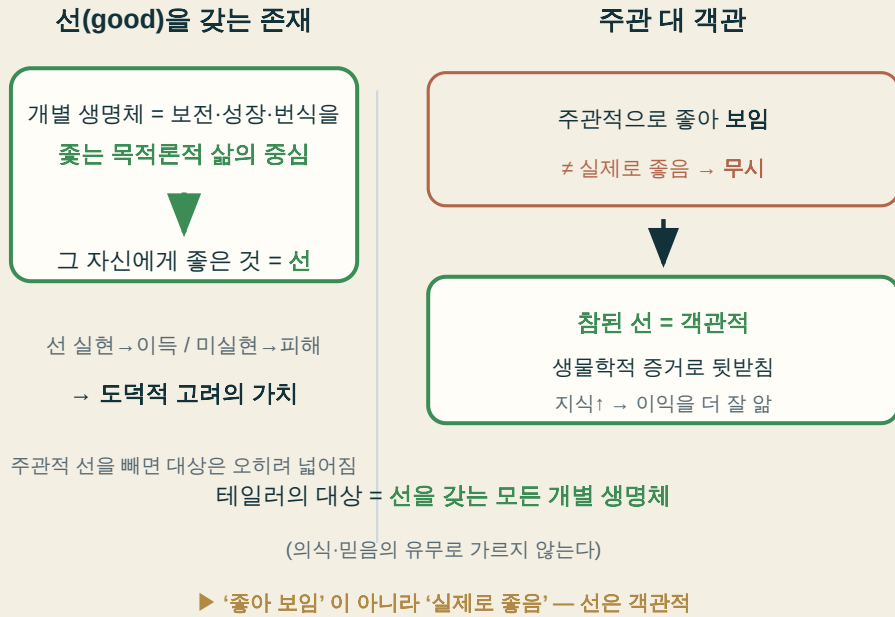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테일러: 개별 생명체는 보전·성장·번식을 쫓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 그 자신에게 좋은 ‘선’을 갖는다. 선은 주관적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것 —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림 1] 생명 중심 윤리 — 선(good)과 주관 대 객관

자연 존중에서 **불침해·불간섭·성실·보상적 정의**가 나온다. 불침해는 ‘유발하지 않은 피해 방지’는 뺀 **소극적** 의무. 순위는 불침해가 최상위, 충돌 시 **보상 > 성실 > 불간섭**.



[그림 2] 네 가지 의무와 우선순위 (불침해 최상위)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심화1 · [1-2]

J1·S0 · 총점1 · 표적(기호㉓)

- ① 원문 개별 생명체가 자기의 보전, 성장, 번식을 ㉓쫓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good)’을 갖는다.
- ② 난도 J1·S0 · 총점1 · 표적(기호㉓) —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라서 ‘선’ 을 갖는다 — 테일러 전체 논의의 출발점이자 도덕적 대상의 자격

개별 생명체 = 보전·성장·번식을 쫓는 삶의 중심
 ↓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좋은 것 = 선(good) 을 가짐
 선을 가진 존재 = 도덕적 고려의 대상 [2-8]
 ㉓쫓는 = 목적을 추구하다 (23번)

- ④ 풀이 J=1 — ‘목적을 쫓는 삶의 중심’ 이라는 전제에서 ‘선을 갖는다’ 는 결론으로 넘어가는 인과가 핵심이다. 이 선이 있어야 도덕적 대상 자격이 생긴다. 쉽게: 살아 있는 것은 저마다 ‘잘 사는 방향’ 이 있고, 그게 그 존재의 선이다.

- ⑤ 합정·공격 21번 ㉓(생명을 지닌 개별 존재)에 테일러가 동의하는 근거다. 23번은 ㉓‘쫓는’ 을 ‘목적을 추구하다’ 로 읽어야 한다 — 시선이 ‘따라가다’(까마귀를 쫓다)로 읽으면 오답. § 8 OX1·3.

심화2 · [2-3]

J1·S1 · 총점2 · 표적

- ① 원문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난도 J1·S1 · 총점2 · 표적 — ★‘주관적 선을 무시하는’ 이유 —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

선은 주관적 믿음·견해에 의존하지 않음 [2-1]
 ↓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좋아 보임 ≠ 객관적으로 좋음
 그래서 테일러는 주관적 선을 무시 [2-4]
 참된 선은 객관적·생물학적 증거로 뒷받침 [2-7]

- ④ 풀이 J=1·S=1 — [2-1]의 ‘의존하지 않는다’ 를 이 문장이 ‘왜’ 로 받쳐, 뒤의 ‘주관적 선 무시’([2-4])와 ‘객관적 선’([2-7])으로 이어진다. 앞뒤를 엮어야 논리가 선다. 쉽게: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나에게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

- ⑤ 합정·공격 19번 ①·②가 이 객관성을 그대로 옮겨 O가 된다. 주관적 선을 ‘존중한다’ 로 뒤집으면 합정이다(A2). § 8 OX5·7.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변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가)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생명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 사상가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자기의 보전, 성장, 번식을 ㉠쫓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good)’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자신의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2 테일러는 선이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주관적인 선을 무시한다. 이는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은 객관적이며,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어떤 존재가 선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3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의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의무는 불침해, 불간섭, 성실, 그리고 보상적 정의로,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해당 의무를 갖는다. 불침해 의무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불간섭 의무는 다른 생명체들을 포획하거나 생명체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막는 것과

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준 인간은 그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앞의 세 가지 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다른 생명체와 인간 간의 도덕적 균형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새의 동지를 파괴한다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그것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4 네 가지 의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해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로, 가장 우선한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5 (나)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게 한다.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6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된다고 본다.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물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체 생태계의 온전함을 해치게 되므로, 그 동물을 선별해 죽일 의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 윤리는 개체와 관련된 윤리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윤리이다. 전체주의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늑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로,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규정한다. 이에 따른다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7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개체 단위에서의 식물과 동물만 고려하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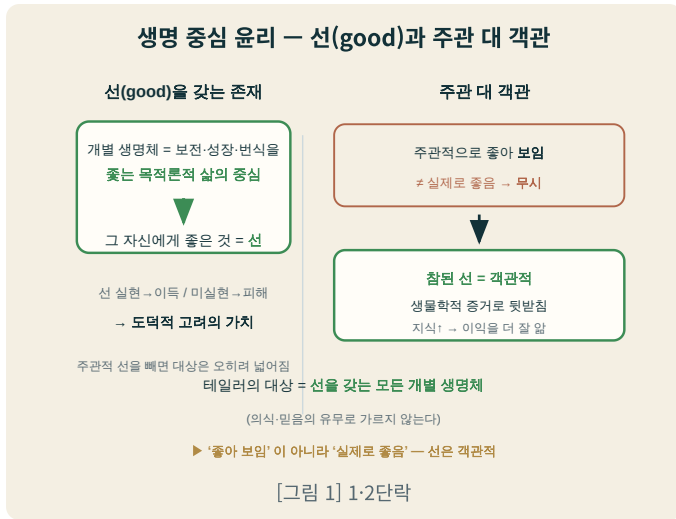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사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가)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생명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 사상가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자기의 보전, 성장, 번식을 ㉠쫓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good)’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자신의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2 테일러는 선이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주관적인 선을 무시한다. 이는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은 객관적이며,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어떤 존재가 선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3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의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의무는 불침해, 불간섭, 성실, 그리고 보상적 정의로,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해당 의무를 갖는다. 불침해 의무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불간섭 의무는 다른 생명체들을 포획하거나 생명체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막는 것과

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준 인간은 그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앞의 세 가지 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다른 생명체와 인간 간의 도덕적 균형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새의 동지를 파괴한다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그것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4 네 가지 의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해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로, 가장 우선한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5 (나)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게 한다.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6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된다고 본다.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물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체 생태계의 온전함을 해치게 되므로, 그 동물을 선별해 죽일 의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 윤리는 개체와 관련된 윤리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윤리이다. 전체주의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늑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로,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규정한다. 이에 따른다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7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개체 단위에서의 식물과 동물만 고려하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⑧ 심화 — 세트 A (이어서)

사례 1

정답 ⑤

(가)를 바탕으로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취지 다람쥐의 자유를 방해한 ㉠(불간섭)와 뒷에 걸린 노루를 풀어 준 ㉡(성실)을 나란히 두어 네 의무를 구분하게 한다. ⑤는 ‘불간섭 위반’을 ‘유발 안 한 피해’로 슬쩍 바꾼 함정이다.

정답확정 ㉠에서 등산객이 양식 모으기를 방해한 것은 인간이 직접 유발한 간섭이다([3-6]). ⑤는 이를 ‘유발하지 않은 피해’([3-5])라고 하여 사실을 뒤집었다 — 방해한 주체가 사람이다. 정답 ⑤.

X로 갈 여지 ②가 헛갈린다. 노루를 ‘풀어 준’ 선행이 성실(기만·배반 금지)과 바로 연결되는지 애매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성실은 야생 동물을 뒷·사냥으로 기만·배반하지 말라는 의무다([3-7]). 뒷에서 풀어 주는 것은 그 정신에 부합하므로 ②는 O다. ◆심화3.

심화 ①은 불간섭([3-6]), ③은 선을 갖는 존재의 고유 가치([2-8]), ④는 보상적 정의([3-9]) 그대로다. 축은 하나 — 사람이 유발한 간섭 인가. § 8 OX13·15. ◆심화3

OX 1

정답 O

[1-1] · 사실 · O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테일러는 그 대표적 사상가로서 개별 생명체 하나하나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를 인정한다.

▣ 취지 글의 출발 명제 — 생명 중심 윤리와 테일러의 관계를 그대로 확인한다.

✓ 정답확정 [1-1]이 생명 중심 윤리가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고 명시하고, 테일러를 그 대표 사상가로 든다. 진술과 일치하는 참이다.

△ X로 갈 여지 ‘하나하나에’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보여 의심하기 쉽다.

▶ 그럼에도 테일러의 도덕적 대상은 선을 갖는 개별 생명체이므로([2-8]) 과장이 아니다.

↑ 심화 이 개별 중심이 (나)의 전체 중심과 갈리는 축이다. ◆기초1

OX 2

정답 O

[1-2] · 사실 · O

테일러에 따르면 개별 생명체는 자기의 보전·성장·번식을 좇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좋은 것인 ‘선(good)’을 갖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취지 테일러의 핵심 논거(목적론적 삶의 중심→선)를 그대로 확인한다.

✓ 정답확정 [1-2]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을 갖는다’고 인과로 적었다. 참이다.

△ X로 갈 여지 ‘선’이라는 말이 윤리적 가치처럼 들려 ‘그 자신에게 좋은 것’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 그럼에도 지문은 선을 ‘그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정의한다([1-2]) — 진술 그대로다.

↑ 심화 이 선이 있어야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2-8]). ◆기초1 ◆심화1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비 공 개

이 지면은 정식판에서 열립니다

미리보기판에는 각 갈래의 첫 장만 담았습니다.
이 쪽의 내용·품질은 열려 있는 지면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